21세기 대학 교육의 발전 방향

이 규 택
국회 교육위원장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서 선진국에 들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양질의 인적 자원 개발이다. 사람이 곧 국력인 시대에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러한 인적 자원의 개발에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미래에 대한 투자 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우리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여 초일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지식 기반 사회로의 성공적인 이행과 디지털 경제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지식 기반 사회 그리고 디지털 경제 시대는 정보와 지식이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이며, 정보와 지식이 경쟁력의 핵심인 동시에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시대이다.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창출, 획득,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적 자원 개발과 관리가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한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는 산업화에 뒤졌던 부분을 만회하기 위하여 양적 성장 위주의 산업 경제 개발 정책을 펼쳐 왔으며, 이러한 국가적인 산업 경제 개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 조정하는 경제 부총리제를 도입 운영하였다. 20세기 산업 사회에서 산업 경제 개발이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이었다면,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 사회에서는 인적 자원 개발과 관리가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 정책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학교 교육은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위주 교육으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능력과 지식 · 기술을 갖춘 인재 개발에 실패하고 있다. 학교 교육이 학생 개개인의 소질, 적성, 능력에 맞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육성하는 기능 수행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교육은 다만 대학 입시에 유용한 교과목의 성적이 좋은 학생을 골라내는 선발 기능만을 수행하여 왔다.

"

21세기 우리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여
초일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식 기반 사회로의 성공적인 이행과
디지털 경제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과정 내용과 자격증 요구 조건, 실제 직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들이 각기 달라 학교 교육 외에 자격증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을 따로 받고, 직장에 입사한 후 직장에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 교육을 다시 받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학교와 노동 시장간의 연계가 긴밀히 이루어지지 않아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저조하고 기업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학교 교육 과정의 구성, 교육 계열별 학생 수 등이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시장에서의 인력 수요 변동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으나, 그간 우리의 교육은 이러한 변화와 수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여 인력 수급에 차질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학교 교육의 폐쇄성을 들 수 있다. 그간 우리의 교육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외부와의 어떠한 상호 작용 없이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학교 밖의 지역 사회, 산업계 등과의 교류 · 협력이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이는 학교 교육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국가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산학 협동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 학교와 기업체간의 내실 있는 협조 체제의 구축 · 운영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실험 · 실습 기자재의 지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기 지도 인력의 지원 등 기업체로부터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 교육은 정규 학생만을 위한 교육의 한계를 넘어 지역 사회 성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생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평생 교육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준비가 미흡한 수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교육 위주의 인적 자원 개발 체제를 평생 학습 위주의 인적 자원 개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학교 교육 체제를 개방하고, 학교 교육과 학교외 교육의 장벽을 제거하고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교육 시기가 특정한 시점에 집중되지 않고, 학교 졸업 후 직장을 다니다가 원하는 시기에 다시 진학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는 산업체 근로자 성인 학습자들이 계속 교육을 용이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학점 은행제, 시간제 등록제, 그리고 사내 대학을 통한 현장 학습 등을 활성화하고 사이버 대학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한 학점이나 학력이 정규 학교 교육 이수와 동등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는 전문 대학이나 4년제 대학, 전문 대학 졸업자에게는 4년제 대학이나 그 이상의 학위 과정 그리고 대학 졸업자에게는 상위 학위 과정을 계속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 선발과 정원 제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넷째, 민간 기업의 인적 자원 개발 참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산업체 근로자의 계속 교육을 위한 사내 대학이나 기술 대학 설치 운영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인적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자하는 기업 그리고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제 등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등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인적 자원 개발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인적 자원 개발 주체인 교육 훈련 기관과 산업체간의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전문 대학이나 대학의 인적 자원 개발을 산업체가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대학들은 산업체 근로자의 계속 교육 기회 제공 등을 통한 산업체의 인적 자원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이규택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와 동양방송을 거쳐 KBS 문화사업부장, 민추협 대외 협력 국장을 역임했다. 또한 6월 항쟁을 주도한 13인의 한 사람으로 구속 수감되기도 하였으며, 14, 15, 16대 국회의원(3선), 민주당(통합) 대변인, 직선 경기도 지부장, 당무위원, 한나라당 홍보위원장, 국회 원내수석부총무를 역임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환동중이다.